

아시아란 무엇인가? 인식과 정체 의식*

김경동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아시아의 21세기'를 접쳐보는 서방지성의 목소리를 배경으로 근대화 과정에서 서방지성의 눈에 비친 아시아의 후진적 특성을 개관하고, 20세기 후반부터 등장한 오리엔탈리즘 비판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의 아시아관에 대한 자기성찰을 살펴본 다음 근대화 성공한 아시아에 대한 서방의 재평가를 고찰한다. 다음으로 아시아 내부에서 바라본 아시아의 모습에 대해 논한다. 아시아의 지식인들은 근대화 초기에 유행하던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을 수용하여 자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나, 이후에는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결론 부분에서는 아시아란 무엇인가를 아시아의 사회문화적 다양성, 아시아 자체의 내재적 아시아 이해, 아시아의 대안적 담론의 성격에 대한 성찰, 21세기 전지구적 무대에서 아시아의 역할, 신문명 시대의 도래와 관련한 아시아의 역할, 아시아 자체의 자아정체 의식, 소위 '아시아의 21세기'를 위한 아시아의 과제 등 다양한 시각에서 점검한다.

주제어 아시아의 세기, 근대화, 서방지성의 아시아관, 아시아의 자아정체 의식, 대안적 담론, 아시아의 역할

I. 서론

“우리는 근대성의 역사적 경과를 진실로 역동적인 과정으로 인식해야만 한다. 말하자면 근대성의 중심이 어떤 특정 지역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동아시아가 전 지구적 근대성의 새로운 무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Tiryakian, 1990: 20). 이것은 1989년 필자가 한국사회학회 회장 자격으로 서울에서 개최한 “21세기 아시아: 도전과 전망”(Kim and Lee, 1990)이라는 주제의 국제회의에서 티리야키안 교수가 한 말이다. 티리야키안 교수는 이미 그 전에도 근대화의 ‘진원지’가 북아메

* 이 글은 2009년 9월 23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국제학술회의, “What is Asia? Retrospect and Prospect”에서 개회강연으로 발표한 것을 우리말로 축약 수정한 내용임을 밝혀둔다. 이 모임에서 강연할 기회를 제공해준 아시아연구소 소장 임현진 교수를 비롯한 관계자 및 발표에 대한 도움말을 아끼지 않은 회의 참가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뜻을 전하는 바이다.

리카에서 동아시아로 이전 중에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고(1984, 1985), “우리는 현재 전 지구적 중심축이 이행하는 시대에 있다”고 선언한 일도 있다(King, 2002: 147). 그 후 1990년대에 홍콩에서 열린 어떤 국제회의에서도 ‘21세기의 아시아’라는 주제를 내걸었고 거기서 제기한 주요 쟁점은 “과연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인가?”라는 것이었다(Chow and Chow, 1997: 170).

다만 이 두 모임은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 아시아에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 그러니까 이러한 낙관적 전망이 가능했던 시기에 개최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신세기를 맞이하고 나서는 ‘유교적 동아시아의 상승’(Tu, 2002) 혹은 ‘아시아의 상승’(Mahbubani, 2008)이라는 오히려 더 적극적인 언급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중 마부바니는 근대 자본주의의 종핵인 월 스트리트발 지구적 금융파탄의 쓰나미가 휩쓸기 전에 이 저서를 출간했을 개연성이 높아서 그런 낙관적 상념이 가능했겠지만 다음과 같은 언명을 하였다. “서방의 상승이 전 세계를 송두리째 변용시켰다. 아시아의 상승도 그와 똑같이 의미 있는 변용을 가져다 줄 것이고 ... 세계에도 유익한 결과가 올 것이다”(Mahbubani, 2008: 1).

이제 2008년의 전 지구적 불황을 지나는 사이 세계 열강이 특별히 주목하기 시작한 나라가 우뚝 서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2009년 8월 10일자 주간지 『타임』은 “중국이 세계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표제하의 특집을 실었다(Elliot, 2009: 22). 『타임』지의 주간 격인 이 필자는 언론인 특유의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견해 대신 『중국이 세계를 통치할 때: 서방세계의 종식과 새로운 지구적 질서의 탄생』이라는 책을 저술한 학자 자크(Martin Jacques)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중국은 더욱 강성하게 성장하여 궁극에는 앞으로 반세기, 아니 오히려 더 이른 시기에, 세계의 지도급 강대국으로 변신할 것이다.” 이런 견해는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21세기의 틀을 짜게 될 것”이라는 담화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기사는 미국이 중국뿐 아니라 인도와 일본 같은 아시아의 강대국 과도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족을 달았다(사실 한국처럼 근자의 경제위기를 거치며 비교적 굳건히 견뎌낸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그 명단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배경적 관찰을 염두에 두고 과연 가까운 미래에 실지로 21세기가 ‘아

시아의 세기'가 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가질 필요도 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시아가 성취해야 할 사항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구체적인 노력도 따라야 한다. 물론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아시아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부터 우선적으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역사, 문명, 문화, 사회, 정치, 경제 기타 여러 측면에서 아시아가 의미하는 바 실체를 규명해야 할 것이나 본고의 취지는 거기에 있지 않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으로서는 공식적으로 지칭하는 지리적 대륙의 하나인 아시아라는 것 말고는 아시아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일이 그리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아시아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의미 있는 답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유용한 생각의 틀이 있을지를 탐색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의 주목적은 그러한 생각의 틀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권역 내외에서 그동안 아시아를 어떤 눈으로 보아 왔는지를 일단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아시아 밖의 세계를 유럽과 북미로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말하는 외부의 관점이란 서방의 것을 가리키고 내부의 자가인식 또는 자아정체의식이란 아시아 사람들 자신의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 고찰은 주로 근대화와 전 지구화라는 인류문명사의 두 가지 큰 흐름의 맥락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근대화에 관한 필자 나름의 이론적 관점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서방세계의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이 아시아를 어떻게 인식해왔는지를 개관하고, 그러한 관점에 대한 아시아 자체의 반응과 자가인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III장에서 이어질 것이다.

II. 서방지성의 눈에 비친 아시아

1. 차이의 부각

첫 번째로 주목할 사항은 서방지성계가 서방과 아시아 사이의 주요한 차이를

부각시키고 이를 설명하려는 시도다. 이를 위해서 유럽의 학자들은 하나의 뭉뚱그려진 문화적 실체로서 유럽의 자가정체의식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과업을 수행해야만 하였다. 적어도 역사적 시각에서 볼 때 최초의 이러한 시도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는 서양이 동방의 이슬람 세계관을 압도하려는 종교적 쟁투에서 비롯하였다. 16세기경에 이르러 유럽의 세력이 무슬림 세력과 벌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유럽이라는 단일한 정체의를 수립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함으로써 해외원정을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서방과는 사뭇 ‘다른’ 인종과 문화에 접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것처럼 미개한 사람들과 자신들을 차별화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시초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성립한 유럽의 정체의식은 이제 이교도적인 원시인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문명세계’라는 세속적 정체의식으로 새로이 정립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¹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유럽은 문명, 진보,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근대자본주의를 바탕으로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세계의 모든 문화권보다 우수하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기 시작하였다. 그 후 산업혁명으로 경제적, 군사적 역량을 갖추게 되면서 유럽은 아시아를 포함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를 제국주의 침탈의 대상으로 삼고 식민지로 복속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서방은 이제 세계 모든 지역이 미개하고 야만적인 데 비해 자신들만이 ‘문명한’ 족속됨을 공공연히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20세기로 접어든 다음,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미국이 경제, 군사 및 과학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함으로써 서방문명의 중심이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종전 후 미국이 주도한 근대화-개발의 과업은 당시 ‘미개발, 저개발, 개발도상’ 상태(undeveloped, underdeveloped, less developed, developing)에 놓여 있었던 이른바 ‘후진 상태의(backward)’ ‘제3세계’를 ‘우리(US, 즉 ‘우리’를 의미하면서 혹은 the United States의 약자를 암시하기도 함)’와 같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이들이 생각한 근대화는 명백하게 ‘서구화(westernization)’ 아니면 매우 특정한

¹ 이 부분의 논의는 주로 다음의 문헌에 의존하였다. Chirot(1994); Delanty(1995); Duara(2002); Eisenstadt(2003); 강정인(2004); Katzenstrin(2005).

게 ‘미국화(Americanization)’라는 것이었다.²

이제부터 소개하는 것은 유럽인들이 간파한 동서양 간의 차이에 대한 논의 중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례들에 대한 개략적 서술이라 하겠다.

첫째, 계몽주의 시대의 몽테스키외(Montesquieu)는 아시아의 제국들을 특징지을 때 토지를 독점적으로 전유한 통치자가 일반국민들에게 재산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에 주목하여 ‘동양적 전제정치’라 지칭하였다. 그 뿐 아니라 그는 유럽이 자유로운 사회인 데 비해 아시아는 ‘복속(subordinate)’ 사회로서 피부색이 다른 인종을 노예로 인정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강정인, 2004: 164-165).³ 한편, 동인도 회사의 관료였던 제임스 밀(James Mill)은 인도의 전통과 문화를 완전히 원시적이며 미개한 것으로 멸시하고 것처럼 야만적인 나라를 대영제국의 자비롭고 개혁적인 행정으로써 한 단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갈파하였다(Mahbubani, 2008: 128). 제임스의 아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중국이 과거에는 수많은 업적을 쌓았지만 전제적인 관습의 장애로 인하여 중국인들의 심성이 마치 저들의 편족처럼 오그라들고 뺄어져서, 보수성은 강해지고 개인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서방의 식민지 정책이나, 상업 및 교회 등의 힘을 빌어 그와 같은 낡은 사회구조를 파괴하고 유럽의 원리대로 재건하는 것이 동방에게 남은 최선의 희망이라고 주장하였다(Ringmar, 2005: 1-12).

둘째, 19세기의 유력한 사상가들인 헤겔(G. W. F. Hegel)이나 맑스(Karl Marx) 등도 이전의 몽테스키외가 제시한 동양적 전제정치의 관념을 기본적으로 이어갔다. 헤겔은 아시아는 일반적으로 전제정치를 실천하는 곳으로서 역사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거대한 역사적 기획의 유아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나아가 아무런 진보도 이룩하지 못하는 비역사적 역사로 동양을 간주하였다(강정인, 2004: 165-166). 맑스가 비록 헤겔의 역사관을 유물론으로 뒤엎기는

² 여러 학자들 중에서도 아이젠슈타트(Shmuel N. Eisenstadt)가 바로 이와 같은 ‘서구화’ 및 ‘미국화’ 논지를 주창한 대표적 인물로 다음과 같은 언명을 한 바 있다. “역사적으로, 근대화란 17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서부 유럽과 북미주에서 전개하기 시작하여 다른 유럽 국가로, 그리고 19세기에서 20세기에는 남미, 아시아 및 아프리카 대륙으로 번져나간 사회, 경제, 정치적 체제의 형태로 변화해가는 과정이다”(Eisenstadt, 1966: 1).

³ 이 동양적 전제정치(Oriental Despotism) 개념은 추후 20세기에 와서 Wittfogel(1967)이 더욱 확대 논의한 바 있다.

했지만, 아시아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는 헤겔의 역사주의에 기초한 편견을 그대로 답습하여 “인도는 알 수 있는 역사가 없다”라든지 “중국은 흐르는 시간의 의식이 없는 나라다”라는 식의 언급을 하고 있다. 물론 그의 유명한 ‘아시아적 생산양식’론 역시, 그것이 정상적 자본주의 이행을 저해하는 세계역사의 보편적 발전의 ‘일탈적’ 사례로서 동양적 전제정체를 영속시키는 물질적 토대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보기에 중국은 전제군주와 보수적 관료 엘리트집단이 지배하는 봉건사회로서 바로 이와 같은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이다. 맑스는 인도에 대해서도 전제정치와 미신과 나태를 종식시키고 근대적이고 세속적인 사회가 생성하도록 해준 점에서 심지어 영국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조차 하였다(Ringmar, 2005: 12; 강정인, 2004: 169).

셋째, 이 문제를 다루면서 막스 베버(Max Weber)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베버의 거대한 학문적 작업 중 하나는 서구에서 발흥한 근대 자본주의가 어찌하여 동방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서 아시아 주요국의 사회구조와 제도, 그리고 문화와 그 기저에 깔린 상징들을 유럽과 비교하였다. 그의 방대한 업적을 요약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그 요점만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베버의 아시아관은, 중국과 인도에서 과학, 법률, 도덕 및 윤리의 영역을 포함하는 모든 문화가 보편화와 보편성의 방향으로 사회적 친교관계 맺기(fraternalization)를 이행하는 데 결정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경험 결여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관계와 거기에 관여하는 문화의 보편화 현상이 동방사회에서는 성립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베버의 아시아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Nelson, 1991: 101). 이를 뒷받침하는 현상으로 베버가 지적한 것은 아시아 사회에서 합리적 근대자본주의 형성에 필수적인 합리화와 합리성의 전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다. 사회영역에서는 가산제적 국가관료제와 카스트 신분제, 문화 부문에서는 세속세계와 초월적 세계 사이의 실존적 긴장의 결핍이 그것이다(Ringmar, 2005: 12).

넷째,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아시아 연구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으나, 그의 가까운 동료 중에 두 사람, 셀레스탱 부글레(Célestin Bouglé)와 마르셀 그라네(Marcel Granet)는 각기 인도와 중국에 대한 상당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부글레는 인도의 카스트 신분제도는 분업의 혁신과 개인의 자유를 위한 조건으로서

사회적 이동을 저해함으로써 근대성의 성립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본다. 한편, 그라네는 특히 한자에서 개발과 근대화를 차단하는 요인을 찾으려 하였다. 한자는 구상적인 대상을 형상화한 표의문자인 까닭에 그 기본적인 표현은 과거지향적인 특성을 띠 수밖에 없으며, 근대적 이론이나 근대 과학의 창출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이 그라네의 견해다(Tiryakian, 1990: 19-20).

이와 유사한 예로 로버트 로건(Robert Logan)의 문자 표기법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는 문자 표기법의 차이가 문명의 진화에 미치는 극적인 영향에 주목하였다. 중국의 구상적인 상형문자 표기법은 총체적이고 직관적이며 다신론적인 문명을 산출한 데 비해, 선형적이고 추상적이며 비상형문자인 서방의 알파벳 체계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유일신적인 문명을 자아내었다는 것이다. 또 사람 이름이나 주소를 적는 법에서도, 한, 중, 일, 동아시아 삼국에서는 봉투에 다 나라, 시도, 주소지 거리, 번지 다음 이름의 순으로 기록하며 사람 이름도 성 다음에 각 개인의 이름을 적는다. 이러한 표기법의 문화적 함의를 살펴보면, 동방의 사유는 무언가 거대한 것에서 시작하여 가장 작은 단위로 끝나는 순서를 밟는 데 반해, 서방의 사고순서는 그 반대라는 것이다(Logan, 1997).

다섯째, 철학, 종교 및 과학 분야의 지식이 지닌 성격에서 동서양의 대조를 지목한 사례는 노스롭(F. S. C. Northrop)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대체로 동양에서는 사물을 탐구할 때 심미적 구성요소에 주목하였고, 서양에서는 이론적 구성요소에 주안을 두었다”는 것을 정식화하고 있다(Northrop, [1946] 1979: 375). 이러한 그의 인식론적 추론을 이 자리에서 깊이 검토할 수는 없으나 다음에 인용하는 문장에서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실은 동방학문에 있어서 격물치지의 방법론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Northrop, [1946] 1979: 315).

구체적인 경험적 지식은 체험에서 얻어야 한다. 이 명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문화의 공통적 진리다. 그런데 이는 동방에서는 매우 특이하고 훨씬 더 근본적인 방법으로 얻어지는 진리다. 동방의 천재적인 통찰에서는 특별한 형태의 지식을 발견했는데, 서방과는 달리 오로지 즉물적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사물의 본성의 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주의를 지속적으로 경주한 것이다(Northrop, [1946] 1979: 315).

서양에서는 항상 관찰 이상의 것, 단순한 경험으로 직접 검증할 수 없는 것을 주장한다. 오히려 선형적으로 가설을 제시하고 적어도 부분적이거나 실험적으로 검토한 연역적 결과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검증하기가 일쑤다. 이런 과정은 심지어 종교적 지식과 예술에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가령 동양의 화가에게는 어떤 대상을 그리는 과정 어디에서도 어떠한 지식 혹은 이론적으로 형성한, 과학적으로 검증한, 공리적으로 규정한 이론의 응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삼차원적인 물리적 대상이라는 주제의 상식적 개념조차도 불필요하다. 동양의 화가가 습득해야 할 첫 번째 숙제는 공리적으로 삼차원적이라 규정한, 상식적인, 외재적 대상에 대한 어떠한 조회도 필요 없는, 순수하고 총체적인 모습으로 즉물적으로 체득한, 심미적 연속체(삼차원적 공간에 일차원적인 시간을 더한 사차원)의 심미적 요인들을 즉각적으로 터득하여 포착하는 역량이다(Northrop, [1946] 1979: 294; 317).

여섯째, 1960년대를 전후한 근대화와 발전론의 문헌에서는 한 가지 공통적인 사고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소위 서방(the West)과 기타지역(the rest)이라는 이분법적 대비에서 전자는 선진적이고 발전한, 근대화한 사회인 반면, 후자는 후진적이고 저개발 상태의, 비근대화 사회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이분법은 근대와 전통이라는 대비로 전이하여 비서방 세계의 전통을 발전과 근대화의 대표적인 저해요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아시아에 있어서 이러한 방해꾼은 물론 유교, 불교, 힌두교, 회교 등 종교적 전통의 보수적 지향, 권위주의적·위계서열적 사회구조, 특히 가산제적 특성을 띤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경직된 사회제도, 특수주의적 사회관계, 집합주의적 개인 경시, 지위와 특권의 귀속적 부과, 정의적 인정주의, 분산된 사회적 역할, 그리고 기타 주로 파슨스류의(Parsonian) 구조기능주의적 논지를 반영하는 것들이었다(Parsons, 1951; 1977; Eisenstadt, 1966; Hall et al., 2006; Harrison, 1988; So, 1990; Kim, 2008).

2. 서방지성의 성찰: 오리엔탈리즘과 기타 유사 논지

가령 노스롭이나 아마도 베버 정도의 예외는 있었으나, 위에서 언급한 아시아와 서방의 대조 속에는 아시아에 대한 서방지성의 경멸과 편견이 깃들어 있

었다. 이러한 선입관에 대한 서방지성의 자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은 흥미롭게도 서방이 수세기 전에 개시한 전 지구적 근대화의 부산물이었다. 지금쯤은 그들 스스로가 말하는 소위 ‘성찰적 근대화’라는 말이 꽤나 익숙해진 셈이다 (Beck et al., 1994).

그런데 이와 같은 ‘성찰성(reflexivity)’ 자체가 실은 서방이 창출한 근대성의 본질로 이미 작용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이 더 흥미롭다. 이러한 논조의 대표적 인물이 다름 아닌 아이젠슈타트라는 사실도 주목을 요한다. 서부 유럽에서 출발한 근대화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고 말했던 아이젠슈타트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각주 2 참조). “여러 상이한 중심부와 엘리트들이 선포한 각양의 해석들 사이의 대결은 근대성의 문화적 과업 속에 내재하는 모순과 거기에 이미 배태해 있던 개방성과 성찰성이 제공하는 잠재적 가능성들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 주었다”(Eisenstadt, 2002: 37). 이는 1960년대의 아이젠슈타트와는 그야말로 천양지차를 보여주는 언명이다.

이런 식의 자가성찰의 대표적인 보기가 이른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지성인은 다수지만 대표적인 인물은 역시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이다.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념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상상으로 어떻게 오리엔트(동방세계)라는 실체를 만들어내었는지 검토하고 있다(Said, 1978; Eisenstadt, 2003; 강정인, 2004; Alatas, 2006). 오리엔탈리즘의 비판을 요약하면, 그 전의 서방 학계가 동양(아시아) 사회를 분석할 때에 서방에서 전개한 근대성의 문화적 프로그램에 뿌리를 둔 개념과 범주들을 그대로 부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역사관에서는 근대국민국가야말로 진보의 극치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다(Eisenstadt, 2003: 402). 서방사상과 서방의 특유한 역사적 경험에서 유래한 개념들을 아시아 사회의 분석에 그대로 옮겨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동양적 전제정체 및 아시아적 생산양식 등이 아시아 사회의 지체현상, 즉 아시아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관점과 관련이 있다.

오리엔탈리즘의 두드러진 특성은 사회, 문화, 종교, 언어, 과학기술 및 경제 모든 면에서 서방사회가 동방보다 우월하다는 이념적 신념이 그 속에 암묵적으로 담겨 있다는 점이다. 이런 식의 우월주의는 서양문명의 예외성과 특이성에

대한 신념과 뒤섞여서 결국 여러 형태의 서방 ‘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로 표출하였다.⁴ 이러한 논지를 상세하게 검토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보기 하나만 살펴보고자 한다.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개념을 제시한지 10년여 후에 사미르 아민(Samir Amin)이 『유로센트리즘(Eurocentrism)』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하였다(Amin, 1989). 아민이 규정한 이 개념은 주로 하나의 이론적 구성체로서 유럽은 ‘자명한 운명(the Manifest Destiny)’이라든지 아니면 ‘백인종의 짐(the white man's burden)’과 같은 이념을 내세워 유럽의 팽창주의와 잉여의 중앙집권화를 정당화하고 스스로의 특이성과 우월성을 세계역사 속에 위치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풀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른 아닌 자본주의의 이념적 구성체이기도 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맥에서 아민은 특히 근대자본주의가 유럽 밖에서는 등장하지 않은 것을 동양에서는 희랍의 합리적 철학의 유산이 결여했다는 것과 연결시킨다. 그러니까 서방에서는 중세기의 종교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정직한 부르주아지를 창출할 수 있었지만 동양은 형이상학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Amin, 1989; Alatas, 2006: 44-45).

3. 아시아에 관한 재고찰

오리엔탈리즘이나 유로센트리즘 같은 성찰이 서방지성계 자체의 편견과 오해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면, 또 다른 맥락에서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대두하고 있다. 그러한 관점은 특이하게도 근대화의 한 부산물 내지 결과로 등장하게 되었다. 가령 근대화에 대한 서방 지성계의 성찰이 근대화 및 전지구화의 부정적 결과에 맞춰져 있었던 데 비해,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성찰은 아시아의 성공적 근대화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때 서방세계가 보여준 반응에는 일말의 감성적 요소가 배태해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자신들

⁴ 이런 관념을 지칭하는 표현은 다양한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Eurocentrism, Europocentrism, Western-centered, Westocentrism, Western/European Exceptionalism or Uniqueness, American Exceptionalism, the American Way 등이다(Eisenstadt, 2003; 강정인, 2004).

이 동양에 대해서 지녔던 잘못된 인식과 해석을 자각하면서 곤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그토록 멸시했던 아시아 나라들이 새로운 산업강국으로 등장하면서 언젠가는 서방이 그동안 점유했던 세계무대의 우위를 위협당할 수도 있다는 일종의 방어적 대응이라는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서방지성계의 반응과 유사한 성찰이 아시아 내부에서도 일기 시작하였는데, 이 문제는 곧이어 다시 논급하기로 한다. 하여간 서방세계의 관점에서는 일본을 위시하여 차례로 동아시아 나라들이 성공적으로 근대화과 발전을 성취했다는 사실이 새로운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그토록 후진적으로 지체하고 전제적이고 빈곤하던 아시아가 하루아침에 경이로운 변신을 한 데 대해서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설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도에서 크게 두 가지 흐름을 포착할 수 있다.

첫째, 일부 학자들은 주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여 주목해야 마땅한 특별한 발전의 ‘모델’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Berger and Hsiao, 1988). 또 다른 이들은 아시아의 근대화에서 ‘전통’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어 놓았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이런 특징들이 속속 나타났으므로 결국 유교가 중요한 요소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근대화의 걸림돌이었던 유교를 논의의 중심으로 새로이 부각시키게 된 것이다. 이처럼 유교가 지닌 긍정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로드릭 맥파쿠하(Roderick MacFarquhar)가 소위 ‘유교 후 가설(post-Confucian Hypothesis)’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불을 당겼고(MacFarquhar, 1980), 그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Kreiger and Trauzettel, 1991; Kim, 1994; 1996b; Tu, 1996; Bell and Hahm, 2003). 흥미롭게도 이 논의의 중심에서는 베버의 유명이 되살아나고 있다. 말하자면 베버의 개신교적 윤리와 기능적 등가성을 지니는 것으로 동아시아의 유교를 풀이하려는 논리가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최근에는 동아시아를 넘어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포함하는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바로 ‘다원적 근대성(multiple modernities)’론이 그것이다. 아이젠슈타트가 이끌다시피 하는 이 담론에서는 동남아시아, 남아시아는 물론 이슬람 지역까지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한 가지 특징이다. 여기에 이러한 담론의 개요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논의는 초기 근대화 이론과 연구에 대한 성찰에

서 시작하여 이제는 전지구적 근대화 과정이 다양한 경로로 전개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은, 이들이 오로지 현재의 근대화 과정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의 아시아 국가들이 유교, 불교, 힌두교, 회교 등 다양한 종교의 영향 아래 사실은 자기들 나름의 역동적 변화를 시도한 바 있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역사를 재검토해보면 서방지성이 포착한 동양적 전제정치, 아시아적 생산양식, 가산제 국가, 지속적 정체 등이 반드시 올바른 인식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Eisenstadt, 2002; Sachsenmaier et al., 2002; Eisenstadt, 2003).

III. 내부에서 바라본 아시아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시아 내부에서 학자와 지식인들이 아시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시도 역시 동서양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아시아의 자기관찰

근대화 초기에 아시아의 학자나 정책 수립가들이 일관되게 지녔던 생각은 신속한 발전을 위해서는 서방의 문물을 그대로 모방해야 하고, 그러자면 근대화를 저해하는 전통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아시아 삼국에서 유교를 근대화의 장애요소로 지목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실제로 전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탈피하였는지는 재검토의 대상으로 남아 있지만, 적어도 당시의 분위기는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Korea University, 1965; Pyle, 1969; Tu, 1997).

시간이 흘러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된 1970년대에 이르면 이러한 태도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다. 정치경제 부문에서는 정치와 기업 활동에서 토착적 형식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학계에서도 학문의 토착화 논의가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⁵ 학계의 동향만 간략히 살펴보자면, 초기의 아시아 사회과학자들은 서

⁵ 이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는 Alatas(2006) 참조 요망.

방의 학문을 일종의 ‘죄수의 심성(captive mind)’으로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자기 사회에 적용하려 하였다. 이러한 심성은 창의성이나 독창적인 문제의식이 결핍하고, 파편화된 관점을 갖는다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사회적 쟁점이나 자기 나라의 전통과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Alatas, 1972: 9-10; Alatas, 2006: 30-31). 식민지적 경험에서 유래한 이런 심성은 일종의 학문적 제국주의와 종속성을 표상한다(Kim, 1996a; Alatas, 2006).

여기서 우리는 서방이 아시아를 바라볼 때 지녔던 우월감과는 대조적으로 아시아에서는 토착화나 대안적 담론을 추구하면서도 일종의 자기비하적 자세를 탈피하지 못한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다. 이런 현상은 아직도 세계적 학문공동체의 구조가 서방중심적, 서방지배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서방학계에 대한 아시아 학계의 ‘정치적 종속’의 불가피성을 암시한다 할 것이다(Kim, 1996a).

2. 아시아의 자기주장

학문적 성과의 질을 평가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방의 중심부에 의존해야 하는 학계의 사정에 비하면, 적어도 기업부문 혹은 경제영역에서는 서방중심의 영향력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는 조짐을 읽을 수 있다. 물론 아직도 국제통화기금(IMF)이라든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등 금융정책을 다루는 국제기구와 월스트리트라는 금융기관의 집합체가 주요 정책결정이나 자금의 흐름을 상당 정도 좌우하고 있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경제규모나 금융권력의 상대적 위상에 변화가 보인다는 사실도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를 배경으로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서방의 일방적 지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예가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를 둘러싼 논쟁이다. 이러한 논의의 요체는 적어도 국가의 통치에 관한 한, 서방의 표준과 가치를 일방적으로 아시아에 강요하지 말라는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적 가치론의 핵심적 논지는 민주주의가 아무리 보편 가치라 해도 개개 사회의 전통적 문화지향에 따라 적용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⁶ 아마 과격한 회교도 같으면 서방식 민주주의 자체를 즉각 배격할 지도 모른다. 이처럼 아시아 자체가 이제는 자신의 신념을 공공연히 선포하고 있으며, 서방의 가치에 대해 반박할 지위에 이르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⁷

IV. 아시아란 무엇인가? 결론을 대신하여

결론을 대신하여 여기서는 우리가 제기한 질문, “아시아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탐색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이 장에서는 필자의 근대화에 관한 대안적 이론을 원용하여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필자의 논지는 사실 간단하다. 아시아에 대한 인식과 정체의식의 문제는 알고 보면 근대화의 전개과정에서 드러난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변동의 성격에서 유래한다고 보는 것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근대화의 대안적 답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Kim, 2008).

우선 근대화는 어디까지나 서방, 특히 서유럽에서 16세기를 전후하여 최초로 발생한 거대한 역사적 변동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 점에서는 서방의 견해와 일치한다(Chirot, 1994). 다만 그렇게 시작한 근대화는 서서히 유럽 전체 지역으로 번져나갔고 19세기에 이를 즈음에는 전 세계로 번져나갔다. 이는 유럽의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문화접변(international acculturation)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사회에서 외래 서방문화에 접하여 거기에 반응하면서 적응적 변동(adaptive change)을 시도하여 마침내는 각기 토착화(indigenization)를 해나가는 변증법적 과정이기도 하다. 이때 문화접변은 구미문화가 타 지역으로 일방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대칭적 문화접변(tilted acculturation)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각 사회가 외래문화를 선택

⁶ 실지로 2010년 3월 22일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nternational Herald Tribune)』에는 중국의 의회관계자가 서방식 민주주의는 중국이 액면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언을 한 기사가 실렸다.

⁷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쟁에 참여하거나 이 주제를 분석적으로 다룬 학자들 중에 대표적인 보기는 다음과 같다. Hitchcock(1994); Zakaria(1994); Fukuyama(1998); Lim(1997); 김경동(2002); and Mahbubani(2004).

적으로 받아들여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필자는 이를 ‘선택적 근대화(selective modernization)’로 규정하였고, 그 결과로 형성한 문화는 서구적 근대화의 대안이라 할 수 있는데 필자는 이를 ‘대안적 근대성(alternative modernities)’이라 명명하였다.⁸

이런 관점에서 아시아의 인식과 정체의식을 살펴보자면, 초기 서방의 아시아관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초기 근대화 시기 과학기술, 경제, 군사, 기타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서방의 힘이 월등하게 우세했던 동서양 간의 비대칭적 관계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따라서 서방이 아시아를 경멸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것은 거의 당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지구적 차원의 근대화가 진전하는 과정에서 서방은 서방대로,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자가성찰을 하기 시작했으며, 그러는 사이 아시아의 상대적 힘이 커짐으로써 새로운 인식과 정체의식이 싹트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위에서 개관한 동서양의 아시아관의 변천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이 바로 ‘대안적 근대화론’이다. 이와 같은 시각을 토대로 과연 아시아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맞서보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아시아를 규정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대륙의 지리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다양성을 배제하고 논의를 펼칠 수가 없다. 실지로 아시아는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혹은 더 많은 아시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없지 않은 형편이다(Lim, 1997; Therborn, 2006: 282-287; Mahbubani, 2008). 이 다양성을 무시하고 아시아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려고 할 때는 아시아적 가치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오류를 범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아시아적 가치론이 마치 하나의 단일한 현상으로 간주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잘못 짚은 것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 바로 그 다양성에 있다.

둘째, 오리엔탈리즘이나 유럽중심주의 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관련해서 현재 아시아 내부의 대안적 담론을 탐색하는 사람들과 역외에서 다원적 근대성론자들 사이에 일정한 관점의 수렴을 발견할 수 있다. 적어도 이들이 동의하

⁸ 이러한 과정 자체를 일종의 음양변증법적 변화로 본다는 견해도 제시한 바 있으나 지면의 제약으로 소개하지는 않는다(Kim, 1991; 2007).

는 바는 아시아를 연구할 때 서방의 외래적인 개념과 이론틀 및 분석법 등을 일방적으로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Alatas, 2006; Eisenstadt, 2002; 2003). 물론 이 점에서도 아직은 세계의 학계가 서방의 핵심국 학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이를 극복하고 학문의 정치적 종속에서 탈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문화적 독립성을 성취하는 과제는 추후 넘어야 할 산으로 남아 있다(Kim, 1996a).

셋째, 일단 아시아 학계가 대안적 담론을 제안한다 해도 신중해야 할 점이 있다. 가령 근자에 가장 활발한 논의 중 하나가 근대화에 있어서 유교의 역할에 관한 아시아 학계의 ‘주장’이 있다. 여기서 문제는 유교의 다중적인 성격과 내용의 복합성을 경시함으로써 오류를 범하는 사례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아시아적 가치론에서도 ‘아시아’와 ‘가치’라는 두 개념 모두가 매우 거대하고 모호한 것이므로 함부로 규정하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모두 특히 방법론적 명료성을 결여할 때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해진다(Kim, 1994; 1996b; 김경동, 2002).

넷째, 아시아가 경제적 성과에 힘입어 세계무대에서 차츰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현금의 사정에 비추어 21세기 아시아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를 묻는 물음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령 최근의 국제적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일부 학자와 언론인들이 중국이 세계를 구해내는 문제를 논의하기에 이르렀을 때 서방의 지성이 내어 놓은 대답은 “그렇다 해도 너무 서두르지는 않는 게 좋을 것이다”였다(Elliot, 2009).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러한 담론의 핵은 아시아의 경제력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시아의 세기, 21세기를 논하려면 경제에만 국한해서는 그 의미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결국 다른 측면에 대한 검토를 결들여야만 비로소 원만한 논의가 가능해진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1990년대 초 하버드의 다니엘 벨(Daniel Bell) 교수와 나는 KBS TV 인터뷰 내용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담의 주제는 21세기의 아시아가 신문명의 진원지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벨 교수는 경제뿐만 아니라 기술과 그 기저의 이론적 지식의 창출 그리고 민주주의를 거론했다(오성근 외, 1994). 아마도 여기에 도덕의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아시아가 성큼 일어설 것은 거의 자명한 듯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개발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보인다. 다만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과학의 이론적 지식의 창출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노벨상 수상자의 수가 더욱 늘어나야만 한다. 다음, 민주주의에서도 아시아는 한참 뒤쳐져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Dore, 1990). 그러면 도덕의 영역은 어떤가? 솔직히 현금의 서방세계의 도덕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 모습은 여러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아시아는 그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일부 학자들은 아시아의 전통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세계의 도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지만 실천이 따라야 진정성과 보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처럼 종합적으로 볼 때 아시아의 세기로서 21세기의 꿈은 당분간은 실현시키기 어려운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자면 적어도 아시아 내부의 상호교류와 협력 및 결속이 주요 관건으로 떠오르는데, 여기에는 아직도 상당한 제약과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끝으로 물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과연 아시아가 하나가 되는 길이 있는가? 아시아는 ‘아시아’라는 단일한 정체의를 공유하는가? 아니면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가?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그 중에서도 영향력이 큰 나라일수록 민족주의, 국민주의가 강렬한 것이 특징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시아적 정체의를 형성할 수 있는가? 아직은 명확한 답이 없는 현실이다. 이제부터라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같은 곳에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해야겠지만 아시아 여러 나라의 지성인들이 자주 만나서 공동으로 이런 과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데, 이 글이 큰 몫을 할 수 있길 바란다.

투고일: 2011년 5월 5일 | 심사일: 2011년 5월 23일 |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20일

참고문헌

- 강정인. 2004.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 서울: 아카넷.
 김경동. 2002. 『한국사회발전론』. 파주: 집문당.

- 오성근 · 오진산 · 신보연. 1994. 『세계석학에게 듣는다』. 서울: 사회평론.
- Alatas, Syed Hussein. 1972. "The Captive Mind in Development Studie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34(1): 9-25.
- Alatas, Syed Farid. 2006. *Alternative Discourses in Asian Social Science*. New Delhi, Thousand Oaks, CA, London: Sage Publications.
- Amin, Samir. 1989. *Eurocentr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Beck, Ulrich, Anthony Giddens, and Scott Lash. 1994. *Reflexive Modernization: Politics, Tradition and Aesthetics in the Modern Social Order*.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Bell, Daniel A. and Hahm Chaibong. 2003. *Confucianism for the Modern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ger, Peter L. and Michael H. H. Hsiao. 1988. *In Search of an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 Chiot, Daniel. 1994. *How Societies Change*. Thousand Oaks, CA: Pine Forge Press.
- Chow, Paula K. and Gregory C. Chow. 1997. *Asia in the Twenty-First Century: Economic, Socio-Political, Diplomatic Issues*. Singapore, London: World Scientific.
- Delanty, Gerard. 1995. *Inventing Europe*. London: Macmillan.
- Dore, Ronald. 1990. "How Democratic is Modern Japan?" in Kim Kyong-Dong and Su-Hoon Lee (1990), 147-160.
- Duara, Prasenjit. 2002. "Of Authenticity and Woman: Personal Narratives of Middle-Class Women in Modern China." in W. H. Yeh, ed. *Becoming Chinese: Passages to Modernity and Beyond*, 342-364.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Eisenstadt, Shmuel. N. 1966. *Modernization: Protest and Chang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_____. 2002. *Multiple Modernitie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 _____. 2003. *Comparative Civilizations and Multiple Modernities*. 2 Vols. Leiden: Brill.
- Elliot, Michael. 2009. "Commentary, Into the Unknown." *Time*. August 10: 22-23.
- Fukuyama, Francis. 1998. "Asian Values and the Asian Crisis." *Commentary*. February: 23-27.

- Hall, Stuart, David Held, Don Huber, and Kenneth Thompson. 2006. *Modernity: An Introduction to Modern Societies*. Cambridge, MA: Blackwell.
- Harrison, David. 1988. *The Sociology of Modernization and Development*. London: Unwin.
- Hitchcock, David I. 1994. *Asian Values and the United States: How Much Conflict?*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Katzenstein, Peter J. 2005. *A World of Regions: Asia and Europe in the American Imperium*. Ithaca, NY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Kim Kyong-Dong. 1991. "Social Change and Social Integration in Korea: Some Theoretical Reflections." *Asian Perspective* 15(2), 5-31.
- _____. 1994. "Confucianism and Capitalist Development in East Asia." in Leslie Sklair, ed. *Capitalism and Development*. 87-106. London: Routledge.
- _____. 1996a. "Toward Culturally 'Independent' Social Science: The Issue of Indigenization in East Asia." in Su-Hoon Lee, ed. *Sociology in East Asia and Its Struggle for Creativity*. 63-72. Madrid: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 _____. 1996b. "Confucianism and Modernization in East Asia: Theoretical Explorations." in Joseph Kreiner, ed. *The Impact of Traditional Thought on Present-Day Japan*. 49-69. Munchen: Iudicium-Verlag.
- _____. 2007. "Reflections upon the Dilemmas of Civilization: The Wisdom of Yin-Yang Dialectics." in Kyong-Dong Kim and Hyun-Chin Lim, eds. *East Meets West: Civilizational Encounters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in East Asia*. 13-33. Leiden: Brill.
- _____. 2008. "Selective Modernization and Alternative Modernities: In Search of an Alternative Theory."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47(2): 105-161.
- Kim Kyong-Dong and Su-Hoon Lee. 1990. *Asia in the 21st Century: Challenges and Prospects*. Seoul: Panmun Book Co.
- King, Ambrose. Y. C. 2002. "The Emergence of Alternative Modernity in East Asia." in Dominic Sachsenmaier, et al. (2002), 139-152.
- Korea University. 1965. *Repor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roblems of Modernization in Asia*. Seoul: Asiatic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 Kreiger, Silke and Rolf Trauzettel. 1991. *Confucianism and the Modernization of China*. Mainz: v. Hase & Koehler Verlag.
- Lim Gil-Chin. 1997. "Asia-U.S. Relations: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in Chow and Chow (1997), 117-135.
- Logan, Robert. 1989. *The Alphabet Effect: The Effect of the Phonetic Alphabet on the Development of Western Civilization*. New York: William Morrow.
- MacFarquhar, Roderick. 1980. "The Post-Confucian Challenge." *The Economist* (February): 67-72.
- Mahbubani, Kishore. 2004. *Can Asians Think?*, 3rd Ed. Singapore: Time Editions.
- _____. 2008. *The New Asian Hemisphere: The Irresistible Shift of Global Power to the East*. New York: Public Affairs.
- Northrop, F. S. C. [1946] 1979. *The Meeting of East and West: An Inquiry Concerning World Understanding*. Woodbridge, CT: Ox Bow Press.
- Nelson, Benjamin. 1991. "On Orient and Occident in Max Weber." in Peter Hamilton, ed. *Max Weber: Critical Assessments 1, Volume III*. 96-106. London: Routledge.
- Parsons, Talcott. 1951. *The Social System*. Glencoe, IL: The Free Press.
- Pyle, Kenneth B. 1969. *The New Generation in Meiji Japan: Problems of Cultural Identit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Ringmar, Erik. 2005. *The Mechanics of Modernity in Europe and East Asia: The Institutional Origins of Social Change and Stagn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Sachsenmaier, Dominic, Jens Riedel, and Shmuel N. Eisenstadt. 2002. *Reflections on Multiple Modernities: European, Chinese and Other Interpretations*. Leiden: Brill.
- Said, Edward. 1978.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Books.
- So, Alvin Y. 1990.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 Modernization, Dependency, and World System Theories*. London: Sage Publications.
- Tiryakian, Edward A. 1984. "The Global Crisis as an Interregnum of Modernity." in Edward A. Tiryakian, ed. *The Global Crisis: Sociological Analysis and Responses*. 123-130. Leiden: Brill.
- _____. 1985. "The Changing Centers of Modernity." in E. Cohen, M. Lissak and

- U. Almagor, ed. *Comparative Social Dynamics: Essays in Honor of S. N. Eisenstadt*. 131-147. Boulder, CO: Westview.
- _____. 1990. "On the Shoulders of Weber and Durkheim: East Asia and Emergent Modernity." Kim Kyong-Dong and Su-Hoon Lee (1990), 3-25.
- Therborn, Göran. 2006. "Europe and Asias: In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and in the World as a Cultural System." in Göran Therborn and Habibul Haque Khondker, ed. *Asia and Europe in Globalization: Continents, Regions and Nations*. 275-309. Leiden: Brill.
- Tu Weiming. 1996. *Confucian Traditions in East Asian Modern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Family, Nation and the World: The Global Ethic as a Modern Confucian Quest."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Challenge of the 21st Century: The Response of the Eastern Ethics*, organized by the Asian Foundation, Seoul, Korea.
- _____. 2002. "Implications of the Rise of 'Confucian' East Asia." *Daedalus* 129(1): 195-218.
- Wittfogel, Karl. [1957] 1981. *Oriental Despotism: A Comparative Study of Total Pow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Zakaria, Fareed. 1994. "Culture is Destiny: A Conversation with Lee Kuan Yew." *Foreign Affairs* 73(2): 109-125.

Abstract

How are We to Understand Asia? Perceptions and Identities

Kyong-Dong Kim KAIST Business School

Against the backdrop of the notion ‘the 21st century as the Century of Asia,’ this paper reviews the characteristics of typical Western views on Asia, from the incipient phase of modernization, to the stage of its reactions to Orientalism, and to the current period of Asia as a model of economic success. Then, this paper examines the views on Asia as seen from within, including its self-critical attitude prominent during the early stage of modernization that reflects its admiration for the popular ways of the West as well as its later attitude of assertiveness with which Asia began to insist on the ways of their own rather than blindly imitating the West. In the closing section, the central question of ‘What is Asia?’ is analyzed in relation to the issues of diversity within Asia, Eurocentric stereotyping of Asia, alternative discourses on Asia, the status and role of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question of how Asia could make the 21st century the ‘Century of Asia?’

Keywords | The Century of Asia, modernization, Western views of Asia, Asia’s own self identity, alternative discourses, the role of Asia